

# “마지막 홈 경기는 페스티벌” 광주FC의 초대장

25일 상주전, 전용구장 첫 승 도전  
펠리페·엄원상·윌리안 삼각편대  
홍준호 견고한 수비...승리 기대감

선수들 창단 10주년 유니폼 착용  
선수 사진전·역대 최고 성적 축포  
경품 등 홈 폐막전 이벤트 다양



광주FC가 다시 만난 팬들과 잔치를 벌인다.

광주는 25일 오후 2시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상주상무를 상대로 2020 K리그1 2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홈

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홈폐막전'이다.

올 시즌 광주는 창단 첫 파이널A리그 진출을 이루며 또 다른 역사를 이뤘다.

하지만 파이널A의 벽은 높았다. 포항(3-5), 대구(0-1), 전북(1-4)에 연달아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근 3연패다.

홈폐막전을 앞둔 광주에는 반가운 전력 가세가 있다.

지난 포항전에서 논란의 퇴장 징계로 자리를 비웠던 공-수의 핵심 펠리페와 홍준호가 돌아온다.

'해결사' 펠리페의 복귀가 무엇보다 반갑다. 광주는 펠리페가 돌아오면서 엄원상, 윌리안과 함께 삼각편대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세 선수는 올 시즌 광주의 32골 중 24골을 만들어 내며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 펠리페는 12골로 리그 득점 6위에 오르는 등 K리그1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줬다.

홍준호도 올 시즌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광주의 수비 한 축으로 거듭났다.

20경기에 나온 홍준호는 클리어링(3위-89개), 차단(11위-121개), 블락(공동 2위-19개) 부분에서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홍준호는 최근 세 경기에서 10실점을 한 수비진에 견고함을 더해줄 수 있다.

펠리페, 홍준호 그리고 '12번째 선수'의 합류도 광주에는 큰 힘이다.

지난 13일 경기장 관중석이 다시 열리면서 광주는 이번 홈폐막전에서 팬들과 함께 될 수 있게 됐다.

광주는 올 시즌 전용구장 시대를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16라운드 강원전 단 한 경기에서만 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든든한 홈팬들의 지원 속에 안방 최종전에 나서는 광주에는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광주는 13라운드 수원삼성과의 경기를 통해서 광주축구전용구장으로 동지를 뉘겼지만, 아직 '새 안



광주FC의 '해결사' 펠리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와 25일 열리는 상주상무와의 홈폐막전에서 공격 전면에 선다.

〈광주FC 제공〉

방'에서의 승리가 없다. 홈팬들에게 전용구장 첫 승을 선물하겠다는 게 광주 선수들의 각오다.

여기에 상대가 상무라는 점에서 더 승리에 욕심난다.

광주는 올 시즌 '우승후보' 울산과 전북을 상대로 위압감 있는 경기를 펼치며 세 차례 무승부를 연출했다. 1위 독주를 이어온 '초호화 군단' 울산은 광주

와의 대결에서 승리 없이 두 차례 1-1 무승부만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는 유일하게 상주에만 승점을 가져오지 못했다.

박진섭 감독은 2패만 안겨준 상주를 상대로 전용구장 첫승까지 동시에 이루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는 홈폐막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람 수칙에 따라 육성 응원이 금지된 만큼 입장객 전원에게 막대 풍선을 증정해 응원 분위기를 띄운다.

2번 게이트에서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단의 사진전이 열린다. 창단 첫 파이널A 진출과 역대 최고 순위 달성을

축하하는 축포가 경기장 하늘을 수놓고, 광주 선수들은 팬들이 직접 제작하고 선택한 창단 10주년 유니폼을 착용하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하프타임에 비대면 화상통화(ZOOM)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고, 경기 종료 후에는 팬들의 응원 영상으로 홈폐막전이 마무리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최지만, 한국인 첫 WS 안타·득점

탬파베이 4번타자 출전...팀, 다저스에 6-4 승리 '시리즈 전적 1-1'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한국인 타자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에 출전해 첫 안타와 득점 2개를 기록하고 한국 야구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최지만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치른 WS(7전 4승제) 2차전에 4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치고 두 차례 홈을 밟았다.

최지만은 팀이 6-3으로 앞선 7회초 2사 1, 2루 타석에서 대타 마이크 브로소로 교체됐다.

다저스 마운드에 원손 알렉스 우드가 있었기에 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은 원손 타자 최지만 대신 오른손 타자 브로소로 내세웠다.

탬파베이는 다저스의 추격을 막고 6-4로 이겨 전날 패배(3-8)를 설욕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기록한 양 팀은 하루 쉬고 24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탬파베이의 홈경기로 WS 3차전을 치른다.

선발 투수로 찰리 모턴(탬파베이)과 우완 강속구 투수 워커 블러(다저스)가 예고된 타자 최지만은 3차전에도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지만은 전날 7회 1사 2, 3루에서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기 전 원손 투수가 나온 바람에 다시 오른손 타자로 교체돼 기록상으로는 출전했을 뿐 월드시리즈 경기를 뛰진 못했다.

그러다가 이날은 다저스 우완 선발 투수 토니 곤솔린을 맞아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다.

1회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선 최지만은 1-0으로 앞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1루를 밟았다.

선행 주자가 2루에서 잡힌 사이 최지만은 1루에서 살았다. 마누엘 마르코트의 안타 때 2루에 간 최지만은 조이 웬들의 우중간 2루타가 나오자 마르코트와 함께 득점해 점수를 3-0으로 벌렸다.

최지만은 5-2로 쫓긴 6회 추가점의 포문을 열었다. 선두 타자로 나와 다저스 우완 구원 조 켈리의 낮은 심커를 잡아당겨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로 최지만은 한국인 타자 월드시리즈 첫 안타를 장식했다.

곧이어 터진 마르코트의 좌전 안타 때 기민하게 3루에 안착한 최지만은 웬들의 좌익수 희생플라이 때 여유 있게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이 득점이 승리에 결정적인 점수가 됐다.

탬파베이는 올해 가을 야구에서 1할대 초반의 타율로 부진하던 브랜던 로가 살아나면서 승기를 잡았다.

다저스는 3-6으로 뒤진 8회말 코리 시거의 솔로 홈런으로 4-6으로 따라붙고 저스틴 터너의 2루타로 기회를 이어갔지만, 세 타자가 연속 진루타 없이 물러나 마지막 찬스를 놓쳤다.

/연합뉴스



## 광주대, 대학축구연맹전 16강 진출

한산대첩기 조별리그 무패...25일 오전 연세대와 8강 놓고 일전

광주대학교가 대학축구연맹전 16강에 진출했다.

광주대는 지난 21일 경남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56회 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동원과학기술대와의 예선 최종일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회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단국대를 3-2로 제압한 광주대는 대구예술대, 동원과학기술대의 대결에서 각각 1-1 무승부를 거두는 등 무패기록으로 18개팀이 경쟁하는 본선에 올랐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한

산대첩기'와 '통영기' 2개 리그로 나눠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 각 리그에서는 36개팀이 출전해 예선경쟁을 벌였다.

광주대는 25일 오전 11시 연세대와 8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광주대는 4년 연속 U리그 권역 우승에도 도전한다. 지난 7일 시작된 '2020 U리그(전북·전남·광주)' 6권역에서 광주대는 남부대, 조선대, 호남대, 전남목포과학대, 세한대, 초당대, 우석대, 전주대와 한조에 편성돼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

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